

제 6기 「독립정신」 답사단 모집

광복군 창설 70주년

제 6기 「독립정신」 답사단

광복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무한-구강-부양-임천-개봉-등봉-낙양-서안

2010. 07. 8. 목- 2010. 07. 14. 수 (6박 7일)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대학생 55명 내외
선발대상 역사와 민족의식이 투철한 남녀학생
선발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관련학과

참가비 : 학생 50만원 (비자비등 일체 경비 포함)
접수기간 : 5월 06일 (목) ~ 5월 26일 (수) 오전 10시까지 접수
신청서 접수 : 본회 홈페이지 www.kopogo.com
선발발표 : 6월 4일 (금) 본회 홈페이지 발표
선발자 워크숍 : 6월 25일 (금) ~ 26(토) / 1박2일
-미참석자는 포기로 간주, 예비후보 선발
기타 :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요망
참가자 답사 수료증 수여



주최 :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후원 : @내일신문
국가보훈처

협찬 : 삼성전자 GOLDE BRIDGE

독립정신

51호
2010년 5.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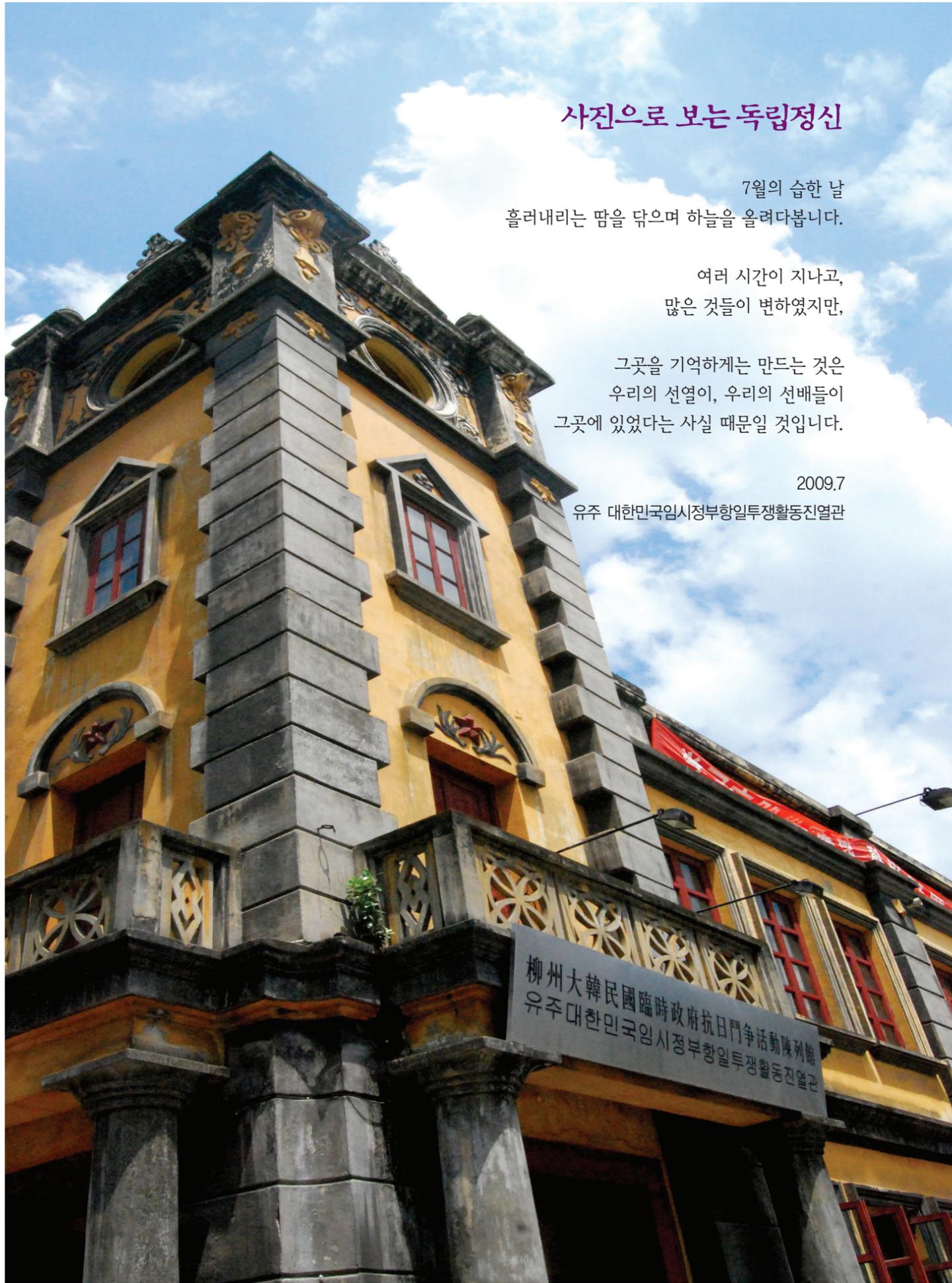
경술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일제의 국권침략 과정과 그 성격

관두연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와
독립운동사의 문화컨텐츠화 작업
독립운동가
역사에 모든 것을 내던진 민중식 선생
민중식 선생의 체포에 관한 오해와 진실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의 광대,
임진택 선생을 만나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진으로 보는 독립정신

7월의 습한 날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변하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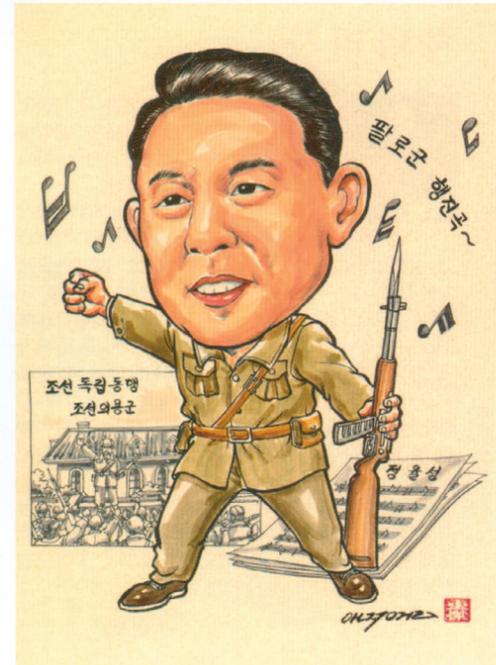
그곳을 기억하게는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열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2009.7
유주 대한민국임시정부항일투쟁활동진열관

항일과 친일

오선지에 쓴 항일과 친일

항일



정율성 (1914~1976)



광주송일보통학교를 마치고 1933년 항일운동에 가담한 형들을 따라 상해로 간 후, 의열단에서 운영하던 남경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해 사회주의에 입문하였으며 1934년 4월 간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남경에 남아서 항일투쟁을 벌였다. 이 시기 상해에 체재하던 소련의 저명 음악교수 크리노와를 찾아가 성악과 음악 이론을 지도받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연안으로 가서 루쉰 예술학원 음악학부에서 본격적인 작곡수업을 받았고 1939년 항일군정대학에서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 이 때 〈연안송(延安頌)〉 〈10월 혁명행진곡〉과 더불어 대작 〈팔로군대합창〉을 완성했다. 이 곡은 6개 곡으로 구성된 대형 군가로 그 중 '팔로군행진곡'은 팔로군의 전투적 정신과 기상을 행진곡으로 표현해 뒤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로 채택됐다. 1942년 산둥 동남부 태항산으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전투에 나서 조선인 동지들과 함께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을 조직하고 조선혁명군정학교를 설치하였다.

친일

현제명 (1903~1960)



참씨명 쿠로야마 사이민(玄山濟明).
1929년 미국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돌아와 연희전문대학 음악부에서 교편을 잡았고 이듬해 홍난파와 함께 조선음악가협회를 결성하고 초대 이사를장을 지냈다.

1937년 6월 '수양동우회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풀려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친일활동을 시작했다. 1937년 10월 조선문예회 애국가요대회에서 〈전승〉 〈장성의 파수〉(작사 최남선) 등을 작곡하여 발표했고 1938년 6월 수양동우회사건 관련자 18명과 함께 전향성명을 발표하고 친일단체 대동민우회에 가입했다.

1942년 〈싱가폴 함락에 부친다〉는 일제 전승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경성후생실내악단을 조직하여 시국음악회 공연과 일본군 위문 순회 연주를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음악관계자에 대한 숙정작업을 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해방 후 초대 서울대 음대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1953년 한국음악가협회 위원장 1954년 예술원 종신회원으로 선임되었다.



시
리
선
정
선

안사람 의병가 노래

윤희순(尹熙順)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얼 할까 의병들을 도와주세
 내집없는 의병대들 뒷바라질 하여보세
 우리들도 뭉쳐지면 나라찾기 운동이요
 왜놈들을 잡는거니 의복버선 손질하여 만져주세
 의병들이 오시거든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져주세
 우리조선 아낙네들 나라없이 어이살며 힘을모와 도와주세
 만세만세 만만세요 우리의병 만세로다

해설 : 윤희순 선생은 18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877년 16세가 되던 해에 한말 우국지사 외당 유희석(畏堂 柳弼錫)의 장남인 제원(濟源)과 결혼했다. 총명과 효성으로 부덕을 다하는 한편, 외당이 재종제인 의병대장 의암 유인석(毅菴 柳麟錫)을 도와 춘천, 안동, 단양, 천안 등 의병항쟁 전선으로 나간 후 윤희순 선생은 보국하는 길에 남여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완고한 유교가정의 부인으로서 의병을 돕고 주위 부인들을 설득하면서 의병활동도 전개하는 한편, 기록문학의 보고이기도 한 의병가사(義兵歌辭)인 고병정가(告兵丁歌) 등 210여 수를 지어 구국 일념의 의병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또한 모든 가사를 한글로 지어 반상이 엄존했던 시대, 의병의 기층이었던 민중에게 애국의를 선양고취했다. 그리하여 선생의 또다른 우국시 「의병가」를 읽다보면 과거는 이미 소멸된 시제가 아니라, 가슴 두근거리는 첫마음으로 모셔야 할 오래된 역사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도열을 병정들아 내집없이 서러워라 / 나라없이 서러워라 임금섬겨 나라찾아 / 행복하게 살아보세 / 왜놈잡아 임금앞에 꿇어앉혀 / 우리임금 분을푸세 / 우리조선 의병만세 만세 만만세여 / 의기청년 의병만세 만만세요

- 출전 『외당문집』

■ 시선정 : 홍일선 (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2010 05*06

통권 51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와 독립운동사의 문화컨텐츠화 작업
| 이두엽



06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1_

일제의 국권침략 과정과 그 성격 | 윤경로



12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2_

일본공영 방송의 역사의식과 표현 | 유재순

22

독립운동_

역사에 모든 것을 내던진 민중식 선생

28

민중식 선생의 체포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신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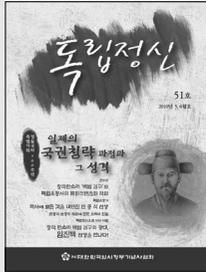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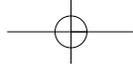


29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항토지〉와 〈붉은 수수밭〉, 중국 대륙의
풍광과 민족영화 | 이두희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일선,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홍용희, 박상희, 박관우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3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의 광대, 임진택선생을 만나대
 | 박상희

40 청년특집 Campus Life
 우리가 모르던 중국 대학의 모습
 | 김태균

44 100년 편지
 할머니의 이야기, 장강의 도도한 물결이 되어
 | 김선현

46 기념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모임」을 기념하며
 | 김자동

48 독립정신 이모저모

51 임정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알기



■ 권두언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와 독립운동사의 문화컨텐츠화 작업



이두엽
본회 이사, 군산대 겸임교수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늦은 7시 서울 정동극장.

280석의 좌석이 가득 메워지고 보조의자까지 동원되었다. 3시간 반에 이르는 긴 시간을, 관객들은 때로는 박수치며 환호하고 때로는 가슴 먹먹해지는 아픔을 함께 나눴다.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서울 초연이었다.

이날의 공연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김구재단이 후원했다. 제작 주체는 창작판소리12바탕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도현, 예술총감독 임진택). 동리 신재효 선생이 판소리를 바로 세웠으나, 원래의 12바탕 중 7바탕은 실전되고 춘향가, 흥보가 등 5바탕만 후세에 전해져왔다.

북으로 간 광주출신 박동실 선생이 유관순, 이준 열사 등을 소재로 열사가를 지었고, 임진택 선생이 김지하 시인의 '오적' '비에' 등 담시를 토대로 문화운동차원에서 창작판소리를 만들어 냈으나 3시간이 넘는 대작(大作)이 세상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차 박제화 되어가던 판소리가 민족자주와 평화통일 이라는 '시대정신'을 끌어안고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로 거듭났으니 2010년 4월 12일은 '문화사적 일대 사건'이 만들어진 날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앞으로 예술적으로 더욱 발효되고 숙성되는 기간도 필요하겠고, 국민의 사랑속에 다듬어지고 재창조 되어야 할 줄로 안다.

4·독립정신

백범 서거 이후 6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예술적 감동’으로 백범의 ‘정신’을 알리는 작업을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해야 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다.

백범선생의 ‘나의 소원’을 판소리 짚은 ‘단가’로 아이들이 기운차게 부르는 날을 꿈꾸어 왔다.

‘나의 소원’에는 ‘문화국가’의 꿈도 담겨 있지만 세계인류가 호흡해야 할 ‘명문장’도 적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참으로 차원 높은 사상이요 정신의 경지가 아닌가.

얼마전 읽은 사회학 관련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사회학의 진정한 목표는 ‘마음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마음의 공동체’. 우리는 이 소중한 목표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해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9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테마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만들었다. 이봉창 의사를 소재로 ‘그 남자의 나라’라는 TV다큐 드라마를 방송했으며, 전국 순회전시회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펼쳐보였다. 큰 규모의 음악회를 열었고 TV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 기나긴 세월을 끌어안고 꿈꾸었던 나라. 자유와 평등이 들꽃처럼 만발한 나라의 ‘꿈’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마음의 공동체’를 알려주고 싶었다.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글씨를 써준 원광대학교 서예과 여태명 교수는 백성 민자 ‘민체(民體)’를 만든 예술가인데, 여교수의 ‘민체’나 ‘개똥이체’는 ‘강인한 기운이 느껴지면서도 시골 장터처럼 정겨운’ 예술 감각으로 사랑받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도란도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육’과 ‘문화’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강인한 정신’을 가지면서도 ‘시골장터’처럼 소박하고 情이 많은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돈’보다 ‘사람’을, ‘역사’를, 그리고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독립운동을 문화컨텐츠로 재창조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집단적 기억’은 민족사의 올바른 전개를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잊혀진 잡지 ‘뿌리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을 만든 고(故)한창기 사장은 우리 문화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문화영웅’이다. 이 척박하고 비루한 ‘정신적 가난’의 시대에 문득 그분이 그립다.

이 시대는, ‘뿌리깊은 나무’도 ‘샘이 깊은 물’도 없는 황량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고(故)한창기 선생.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공연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

|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

일제의 국권침략 과정과 그 성격



윤경로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전 한성대 총장

I.

영욕으로 점철된 우리민족의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어느 한 해도 간과할 수 있는 해가 없지만 2010년 올 해는 어느 해 보다도 역사적 경각심을 더 해주는 특별한 한해가 아닌가 한다. 그 이유의 하나가 올해는 동족간의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깊게 한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치 100년’의 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후자 곧 ‘국치 100년’을 맞이하면서 일제가 100년 전 획책했던 우리나라 국권 침략 과정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성격을 되 짚어보고자 한다. 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이 시작되는 강화도조약(1876)을 기점으로 1910년 8월 경술국치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의 한국침략이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때부터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며 강화도조약(조일수호통상조규) 1조 ‘朝鮮은 自主之邦國이며 日本과 同等한 權利를 갖는다’ 내용을 재음미 해보자. 얼핏 보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를 ‘자주독립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 특히 ‘조선은 자주지방’이라는 이 문구의 행간에는 상당한 정치, 외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즉 이 문구 속내에는 지금까지의 중국과 조선사이의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고도의 함정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다시말해 향후 조선을 일본의 세력권으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조선 사이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차단시키는 선행 작업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自主之邦’이라는 의미는 이 조약의 전제조건이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지방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이 조약이 체결되던 동일한 시기에 일본대표 모리아리노미(森有禮)가 천진(天津)으로 달려가 북양대신 겸 직예총독이었던 이홍장(李鴻璋)과의 담판을 통해 조선이 대외적으로 자주독립 국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던 사실에서 더욱 확인되고 있다.

아무튼 일제는 우리나라를 그들의 식민지로 강제 편입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매우 집요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되었음에 주목이 요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 측은 이같은 집요하고도 교활한 일본측의 합법성을 가장한 제국주의 침략성을 간파할만한 근대의식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강화도조약 협상에 나가는 우리측의 협상카드로 준비된 것은 단지 야소교(기독교) 전파금지과 아편금지라는 두 가지 조건에 불과하였을 정도였으니 일제측이 행간에 담고 있는 ‘자주지방’의 숨은 뜻을 간파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우리측의 무지가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다 아는대로 근대시대로 접어들며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통상조약에 가장 중요한 조항이 관세조항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강화도조약 12개 조항 안에는 관세조항 자체가 빠져있다. 그 이유인 즉슨 우리측이 그러한 관세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빠져했다는 것이다. 한국근대사의 첫 단초에 해당하는 강화도조약이 이렇게 출발했으니, 다시말해 첫 단추를 잘못 끼였으니 그 이후 진행된 한국근현대사가 왜곡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II.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식민지경략에 나선 일제는 청일전쟁(1894)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대륙침략의 교두보로서의 조선반도 식민지화를 획책하려했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연합의 간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 본격적인 식민지경략에 나섰다. 같은해 2월 23일 불법으로 일본군대를 조선에 상륙시켜 조선에서의 필요한 군사 전략적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한일의정서’를 강제하고 같은 해 8월 22일에 ‘한일협정서’를 체결하여 이른바 일본인 ‘고문정치’를 제도화하는 한편 경의선 철도 부설 공사에 착공하여 군용지와 철도주변 부지 및 가옥을 강제 수용하고 군수품 운반 등에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러일전쟁이 승세로 이어지자 일제는 이 여세를 몰아 한국의 식민지획책을 서둘렀다.

|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

1905년 4월 일본 내각은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 때 보호조약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기위한 조치로 1905년 7월 미국과 가쓰라·태프트(桂·Taft)양해각서를 주고받고 8월에는 제2차영일동맹을 맺었으며 9월에는 미국 포츠머스에서 루즈벨트대통령의 주선으로 러일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상의 우선적인 이익을 가지며 조선에 대한 지도, 보호, 및 감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국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 주고받는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것이 같은 동양권인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는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외국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믿음과 예견과는 달리 일본은 그해 11월 17일 ‘조선은 일본의 중개 없이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약속을 체결할 수 없다’(2조), ‘일본인 통감을 두어 외교 및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3조)는 이른바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의 숨통을 끊어놓은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천황이 임명한 통감의 통치하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분개한 의병들이 전국적 규모로 일어나고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이 터지자 이를 빌미로 정미7조약(한일협약)을 강제하여 ‘차관정치’ 곧 일본인 관리를 실무최고 자리인 차관자리에 임명하고 동년 7월31일자로 조선인 군대를 해산시키고 경찰권을 박탈함으로써 군사, 치안권까지 모두 장악하였다. 이밖에도 이 시기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을 공포하여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에 해당하는 일체의 집회, 결사, 출판 등을 철저히 규제하였다. 1910년 9월 ‘합방’ 직후 일진회, 대한협회 등 친일 어용단체 일체를 모두 해산시켰다.

일제의 침략과정으로 주목해야 할 또 한 부분이 경제적 수탈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경제침략의 목적은 식민지역으로부터 원료공급과 상품시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제의 한국 식민지경제 정책은 이밖에도 식량공급확보와 일본의 과잉인구를 한국에 이입시키는 목적이 매우 강했다. 일제가 힘주어 조선에서 실시한 식민지 경제정책으로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한 소이도 여기에 있었다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철도, 도로 등 교통 통신망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도 식민지수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밖에 러일전쟁 이후 대거 일본인들을 입국시켜 일본인 지주와 지주회사를 늘려나가 전통적인 한국 농촌사회가 해체당했다. 이밖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역둔토, 궁장토의 소유권과 경작권을 국유지로 편입시켜 동양

“

식민지 경제지배의 효율성 제고의 또 하나의 관건이 재정감독권에 있음을 직시한 일제는 1904년 한일협약의정서 체결과 동시에 재정고문자격으로 메카다(目賀田種太郎)를 입국시켜 통감부 재정분야를 총 감독 지휘토록하며 '지세징수대장'을 만들어 세입을 늘리고 호구조사를 행하여 가옥세, 주세, 연초세 등을 신설하여 조세수입을 크게 늘리는 등 전형적인 식민지조세수탈책을 획책하였다.

”

척식주식회사에 넘겨 최대 지주로 만들어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농촌사회의 근간을 파괴시켰다. 식민지 경제지배의 효율성 제고의 또 하나의 관건이 재정감독권에 있음을 직시한 일제는 1904년 한일협약의정서 체결과 동시에 재정고문자격으로 메카다(目賀田種太郎)를 입국시켜 통감부 재정분야를 총 감독 지휘토록하며 '지세징수대장'을 만들어 세입을 늘리고 호구조사를 행하여 가옥세, 주세, 연초세 등을 신설하여 조세수입을 크게 늘리는 등 전형적인 식민지조세수탈책을 획책하였다. 이밖에도 화폐, 금융제도 개편을 통해 근대적 국가 재정 제도를 정립한다는 명목 하에 각종세금을 늘려나갔던 사실 또한 식민지침략 과정의 주요한 경제수탈책의 하나였다.

III.

이상과 같은 식민지수탈책은 1910년 8월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한국인의 일본화, 한국영토의 일본영토화라는 동화주의노선(内地延長主義)의 실현과 둘째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일제자본주의 성장의 토대로 삼는다는 예속경제정책의 실현 그리고 제국주의 차원에서 한국을 만주·중국침략의 전진기지로 삼는 대륙침략기지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10년대 일제의 한국식민지 지배의 특징은 무단정치·헌병경찰통치 양태로, 경제적 수탈정책으로는 토지수탈정책·민족산업말살정책 등 식민지수탈 구조로 나타났다. 이중 먼저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근간이 된 헌병경찰통치의 실체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



▲ 일제는 민족교육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1910년대 일제는 어리석은 동화주의정책을 바탕으로 <범죄즉결령>(총독제령 제10호, 1910. 12.3) 제정·공포하여 헌병경찰에게 사법권의 특권을 부여하는 즉결처분권·강제집행권 및 중세기적 태형제도를 두었다. 즉 경찰서장 또는 지방의 헌병분대장까지 “징역 3개월 이하”, ‘벌금 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위반죄, 곧 폭행죄·상해죄·행정법규 위반” 그리고 “구류·과태·태형에 해당하는 죄는 재판관의 판결 없이 즉결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즉결처분의 후속조치로 <조선태형령>(총독제령 제13호, 1912. 3. 18)과 태형준칙인 <태형집행심득>(훈령 제40호, 1912. 12. 30)을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즉결처분, 곧 ‘태형’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전근대적 태형제도로, 치안교란·안녕질서의 파괴·폭력·불온사상 소지 등 명목을 붙여 아무런 죄 없는 식민지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하여 죽이거나 불구를 만들었다. 일제 헌병경찰의 즉결처분권인 태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한국 아낙네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순사 온다.”고 했다. 그러면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초대 조선주차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으로 105인사건을 조작, 날조하는 등 1910년대 무단통치를 획책한 장본인이었던 아카시겐지로(明石元二郎)는 훗날 자서전에서 조선에서의 무단통치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기포성산(碁布星散)’에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회고한 바 있다. 말하자면 1910년대 무단통치기 조선반도 내에서 이렇다 할 조직적, 집단적 저

항이나 봉기가 크게 억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둑판에 바둑 알 깔아놓듯 가을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 모양” 조선반도 전 지역에 헌병대분견소와 경찰지소 등을 설치하여 철통같은 헌병경찰통치를 획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1910년대 식민지 한반도 전지역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형국이었다.

일제는 이와같은 헌병경찰통치를 통하여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도 완전히 박탈하였다. 그리하여 ‘합방’ 후에도 ‘합방’ 전의 악법인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을 그대로 존속시킨 뒤, 민족신문인 《皇城新聞》·《大韓每日申報》등을 폐간하고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또 사상도 통제하였다. ‘합방’ 작업과 함께 <집회취체에 관한 건>(1910.8.25)을 공포하여 모든 정치적 집회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비롯하여 애국계몽단체인 대한협회·서북학회·진보당마저 강제 해산시켰다.

한편 일제는 식민지한국인의 근대적 정치의식의 성장을 가로 막고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하여 ‘합방’ 전 <사립학교령>(1908.8.26)과 <서당에 관한 훈령>(1908.8.26)을 공포하여 민족교육을 통제해 오다가 ‘합방’ 후에는 <조선교육령>(1911.8.23, 칙령 제229호)과 <사립학교규칙>(1911. 10. 20, 조선총독부령 제114호)을 공포하여 민족교육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특히 조선교육령은 제2조에 “忠良한 國民의 育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식민지한국에서 일제의 교육정책이 우리 민족의 민족적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말살시키는 “한국인의 독립운동과 민족적·사상적 기반형성의 파괴(愚民化)와 일본 천황제를 조선민족의 도덕적 기본으로 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교육규범(皇民化)으로 강요”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결과, 일제의 공교육에서 한국의 역사와 지리과목은 완전히 사라지고,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게 되었다. 또 사립학교의 통제가 심해지면서 일제의 동화교육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애국지사들이 서당교육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해 나가자 일제는 다시 서당교육마저 통제하였다.(<書堂規則>, 1918. 2. 20) 이어서 일제는 한민족의 주체성 고취와 일제에 대한 항일의식을 배양할만한 서적들을 압수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상에서 보듯 일제의 한국침략 과정은 매우 합법성을 가장한 법적 절차와 치밀성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작금에도 일본 고위층 관리인이나 정치인들이 ‘식민지 조선’ 지배가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모른다. 더 나아가 ‘식민지 근대화론’이 최근들어 우리나라 내부에서까지 힘을 받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아무튼 ‘국치100주년’을 맞는 우리로서는 과거와 같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역사문제를 다루려 했던 것도 문제지만 계량적 수리적으로 식민지시대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 또한 역사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리 모두 유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㉞

|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

일본공영 방송의 역사의식과 표현



유재순
제이피뉴스 대표

일본에서 NHK하면 '일본 국민방송'으로 통한다. 물론 이 같은 인식 저변에는 NHK가 일본 유일의 공영방송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에게 '국민방송'으로 자리매김 한 것은, NHK와 일본현대사가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NHK의 역사와 그 태동은 일본의 종전(終戰:우리에게는 해방)부터 시작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무모한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태평양전쟁에서 대패, 마침내 미국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1952년 맥아더장군이 이끄는 GHQ(연합군사령부)가 몰려날 때까지 준수금지 통치하에

들어갔다.

NHK도 바로 이때 만들어졌다. 1945-1952년까지 연합사령부의 통치를 받는 동안, 일본 헌법은 물론 일본방송법까지 미국이 철저히 개입하여 만들었다.

맥아더는 종전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일본군해체와 재벌해체를 강행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장 신경을 써서 제정한 것이 일본헌법과 방송법이었다. 일본헌법은 일본국민을 제도권으로 묶는 기틀이었고, 방송법은 일본국민들의 정서를 한곳으로 유도하는 리모콘 기능으로 만들었다.

당시 일본은 1915년에 만들어진 <무선전신법>에 따라 라디오방송만 가능하고 있었다. 이 라디오방송은 태평양전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의 일본라디오방송이 <무선전신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정부 허가에 의해서 열외적으로 인정된, '사설(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법'의 '무선전화사업'

의 라디오방송국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단법인’ 형태의 라디오방송인 것이다.

물론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했다. 바로 이 같은 통제 하에서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이것은 곧바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철저하게 라디오방송을 이용했다. 라디오전국방송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 시켰고, 또한 일본남자들에게 자진해서 전쟁터로 나갈 것을 선동하기도 했다(나중에는 의무 적으로 징발). 이 같은 일본의 방송시스템은 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때문에 일본의 방송학자 일부는 이에 대해서, 당시 라디오방송을 통해 전쟁 찬양가를 외친 방송종사자들도, 간접적이거나 전쟁범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따가운 비판을 한다. 왜냐하면 그 때 수많은 일본젊은이, 혹은 일본남성을 사지에 몰아넣는 나팔수 역할을 라디오방송이 상당부분 담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그 현장에서 일했던 당사자, 즉 양심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일본방송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일본방송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러한 나팔수 기능의 일본라디오방송의 독점체제도 결국 45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뀌게 되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현재의 일본방송법은 1950년 6월 1일, GHQ의 영향력아래 전파법, 방송법, 전파감리위원회설치법, 즉 <전파3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3법 가운데 ‘전파감리위원회설치법’ 이 문제가 되었다.

‘전파감리위원회설치법’ 이 다름아닌 미국방송법의 ‘행정위원회방식’ 을 그대로 차용해 왔던 것.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방송종사자들은 물론, 당시 맥아더 사령관의 실질적인 섭정 정치를 받고 있던 일본중앙정부 관리들까지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찻잔속의 미풍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 전체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게다가 맥아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GHQ의 준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반발을 하는데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는 맥아더 사령관이 노우하면 그것은 절대로 방송할 수 없었다. 준 식민지 상태인만큼 정치적인 문제, 특히 전쟁에 관한 방송은 일본 임의대로 기획할 수도, 또한 방송할 수 없었다.

덕분에 당시 일본방송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친미 방송인들로 채워졌다.

|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

한편, 그 당시 일본국민들의 반응이 대단히 재미있다. 대부분의 일본국민들이 미국의 개입을 은근히 반겨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전쟁에 지쳐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즐거움이 GHQ 연합군의 통치를 반겨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을 선동하는 내용 일색이었던 일본방송이, GHQ연합군에 의해 재즈를 포함한 팝송, 샹송 등 새로운 장르의 문화를 대거 유입, 일본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방송인들은 자진하여 미국의 팝송을 틀고, 나아가서는 미국찬양가를 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전보다 전쟁 후의 준 식민지 통치시대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제아무리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나, 정체성만큼은 일본방송종사자들도 어쩔 수 없나 보았다.

방송의 3법 중 유독 '전파감리위원회설치법'에 대해 일본방송종사자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이 법은 미국의 현행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뿐만 아니라 제도 적용도 똑같이 했다.

말하자면 맥아더가 지휘하는 GHQ연합군이 일본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전파감리위원회설치법'이었다. 결국 방송까지도 GHQ가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때문에 일본방송 종사자들이 반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렇지만 GHQ의 통치를 받았던 6년 8개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맥아더 사령관의 입김이 들어간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법은 결국 1952년, GHQ가 일본에서 철수하자마자 즉시 폐지시켜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법안은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공영방송 NHK와 민방의 차이

공영방송인 NHK와 민방은 방송법의 내용부터 다르다.

공영방송 NHK는 '일본방송사업의 사업형태'로써, '일본 전국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송설비를 해야' 하고, 또한 '전국민의 요망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할 의무를 지닌, 국민적·공공적인 방송기업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반면 민방은 '문화방송기업체, 이른바 일반방송국 또는 민간방송국'으로서 '개인의 창의와 연구에 의한 자유로운 방송문화를 건설하고 고양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2원체제인 공영방송NHK와 민방들은, '서로의 결점을 쌍방이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요망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송법은 1952년 6월 1일에 제정된 이후 착실하게 시행되고 있다.



▲ 현재 NHK방송국 홈페이지 모습

뿐만 아니라 일본방송 종사자들은, 방송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보다 일본민간방송 시행이 더 빨랐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의 공영방송이었던 BBC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상업방송이 도입된 시기가 1955년이었기 때문이다.

일본방송사의 수입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공영방송인 NHK의 수신료(준의무형태), 민방의 광고수입료, 케이블티브이의 계약에 의한 정기시청료이다.

일본방송의 특징은 다(多)채널이다. 때문에 공중파 방송 채널의 선택여지가 많다. 1,3번의 NHK등 무려 7개 채널이 있다. 여기에 각 지역마다 지역방송이 있고, 장르에 따른 케이블 텔레비전이 있다.

1950년대 초, 최초로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개국한 뒤, 70년대에 5개의 민방 채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후 90년대에 들어서 유료유선방송인 케이블 티브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다양한 미디어가 형성되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볼거리가 훨씬 더 많아 졌다.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개시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로 프로

|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

그램의 고화질, 고음질화, 고기능화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또한 방송기술도 평준화됐고, 연예인들의 활동 영역인 공영, 민방, 유선(케이블)의 경계선도 허물어졌다. 대신 방송사들의 적자생존적 경쟁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후 발빠르게 태동한 공영방송 NHK는, 지금까지 별다른 부침없이 일본국민 방송으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해왔다. 한국처럼 동족상잔이었던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10.26박정희 대통령암살사건, 5·18 광주항쟁 등 같은 '특별한 부침'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이다.

물론 70년대 초에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안보전쟁에 대한 일본대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한동안 끊이지 않아 공영방송인 NHK위상이 잠시 흔들린 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NHK기자조차도 안보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동조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여서, 그 때 NHK보도태도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도 베트남전쟁이 끝남으로써 이내 가라앉았다.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민방 텔레비전처럼 젊은 세대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은 보도를 했다고 '역시 NHK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 적어도 NHK만큼은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무한대의 신뢰를 보낸 것이다.

NHK방송에 대한 시청료납부 거부운동

이렇듯 7,80년대의 NHK위상은 절대적이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국네트워크를 가진 데다 일본국민들의 신뢰 또한 그야말로 대단했다. 주요한 행사나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일본국민들은 하나같이 채널을 1번인 NHK에 고정시켰다.

특히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에는 아예 하루종일 채널을 1번에 고정시켜 놓았다. 그것은 12월 31일 7시부터 자정까지 방송되는 'NHK가요홍백전' 때문이었다. 남녀 가수 50여명이 나와 성별로 나누어 가요대전을 벌이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수는 톱가수로서의 위치 뿐만 아니라 국민적 스타로 공인받는 프로그램이어서 유독 인기가 높았다. 오죽하면 가수지망생들의 꿈이 'NHK가요홍백전'에 출전하는 것이라고 할까?

그만큼 'NHK가요홍백전'은 공영방송 차원뿐만 아니라 '일본국민적 프로'였다. 그것은 시청률이 대변해 주었다. 실제로 80년대까지 일본국민 50%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뉴스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가요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남녀노소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점잖고 건전한' 쇼 축제로 전국민이 공인한 프로그램이었다. 때문에 NHK하면 '건전' '건강' '공공' '모범'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하지만 이 같은 NHK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90년 중반까지만 이었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NHK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다른 민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인 보도와 일본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그리고 ‘공영방송다움’의 건전함이 각인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NHK 모습은 이 같은 이미지가 온데간데없다.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마저 일어나고 있다. 왜 이렇게 NHK가 변했을까?

2008년 4월 초, 일본국회에서 방송법개정이 일본야당(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맹렬한 반대속에서 강제통과 되었다. 그러자 일본언론은 방송법개정이 ‘개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아사히, 마이니치신문 등 우수 매체에서는, ‘마침내 일본의 미디어가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되었다’라고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토론에 나온 한 방송학자는 ‘일본 정치인들이 방송을 죽이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개정안이 일본정부의 행정적 권한을 전보다 훨씬 더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방송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왜 일본 언론이 그토록 격한 분노의 비판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 먼저 NHK관련 일부 개정안을 보자.

- 경영위원회가 집행부를 감독하고 경영의 기본방침도 결정한다.
- 허위의 설명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사항을 사실이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방송하여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경우, 총무장관이 방송국에 대해서 재발방지계획의 책정과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제출된 계획은 총무장관의 의견을 붙여서 공표한다.

위의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영위원회’의 권한강화다. 왜냐하면 ‘경영위원회’는 바로 일본정부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내각에서 경영위원을 파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일본 언론과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위의 두번째 항의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다. 구체적인 사실 직시없이 그저 막연하게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이를테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개정법 악용 여지는 방송법 개정안이 성립도 되기전에 이내 현실로 되어 나타났다.

몇년전, 일본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모의재판’

|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

퍼포먼스가 있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인들의 안이한 인식을 널리 깨우고, 일제 강점기 시절 당시 일본위정자들이 저지른 역사에 대해서 각성하라는 취지에서 일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의재판이었다.

이 과정을 바로 NHK-TV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있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 전 수상과 자민당의 실세였던 나카가와 의원이 NHK제작국장과 담당 디렉터에게 압력을 넣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장면을 전부 삭제토록 한 것이다. 그래서 방영된 내용에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나가지 못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모의재판 장면도 그대로 잘려버렸다.

하지만 진실은 살아 있는 법. 아베 전 수상으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았던 NHK디렉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수상 등 정치인들의 NHK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지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베 당시 관방장관은 압력을 넣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땀지만, 압력을 넣는 현장을 그대로 녹음한 아사히신문 기자의 연이은 폭로로, 결국 아베 전 수상은 물론, 압력을 내치지 못하고 굴복하여 역사적 '사실'을 배제한 채 방영한 NHK의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갔다. 재판 결과는 당연히 일본여성단체의 승리. '정치인의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재판부가 여성단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일본시민단체와 시청자들은 바로 이 때문에 공영방송인 NHK를 권력자의 도구로 정치화하기 위해 그런 독소조항을 넣어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NHK에 파견하여 경영에 참여토록 하고, 또한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를 빌미로 정부의 입김을 넣어 지금보다도 더 강경한 우경화정책을 펴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같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일본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시청료납부거부 운동 등 야당의원(현 민주당)까지 가세해, '방송개정악법' 반대운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베정권은 의회에서 방송개정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켜버렸다.

당시 NHK직원들은 방송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공영방송이라고 가뜩이나 정치권의 입김이 강한 곳인데,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됐으니, 그 외풍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느냐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극심한 불황속에 눈물겨운 NHK의 영웅 만들기

NHK의 가장 큰 파워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NHK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일본 민방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지방 방송국까지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민방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방송사다. 때문에 NHK를 제외한 일본민방들은 지방의 방송사들과 제휴 형태로 계약을 맺어 방송을 한다.

바로 이 같은 시스템 때문에 민방에 여러번 출연하는 것보다 NHK에 한번 출연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말을 한다. 즉 NHK에 출연하면 전국에 방송이 되지만, 민방은 그 민방과 계약된 지방방송사만 방영되기 때문에 일본전국에 방송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같은 절대적 파워를 지닌 NHK 영향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것은 연이어 터진 NHK직원들의 불미스런 행위때문.

NHK자회사인 'NHK에듀-캐셔널' 직원의 도쿄도내의 호텔에서 16세의 미성년 여고생과 매춘한 혐의로 일본경찰에 체포, 또 다른 NHK직원의 여고3년생에 대한 강제성추행혐의 현행범 체포, NHK내부 정보자료 인터넷사이트 유출, 운전부주의로 50대 남성을 사망케 함, 주거침입에 의한 현행범 체포, NHK 구마모토 방송국국장의 상습적 성추행혐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절도혐의, NHK오사카 방송국의 뉴스보도 중, 폭력단 간부의 얼굴을 일반인의 얼굴 사진으로 내보내 당사자의 거친 항의로 정정방송 망신 등등.

문제는 NHK가 좀처럼 7,80년대의 그 위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인 온갖 불미스런 일로 실추될 대로 실추된 NHK에 대한 위상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법개정안 통과와 시청료 강제징수안을 놓고, 일본언론은 물론이고 일본국민 대다수가 '안티NHK'의 활동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NHK의 수입 97%가 시청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료납부는 60%를 조금 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호텔, 온천 같은 사업소의 미납 현황까지 합하면 시청료 납부율은 50%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NHK가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NHK자체 내에 대학교수 등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NHK '약속'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NHK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사항, 건의사항을 조사해 개혁안을 만들었다.

1년간 20여회가 넘는 모임을 통해, 일본 전국의 NHK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체크하고, 시청자 개별, 혹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불만사항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렇게 조사된

| 국치 100주년 특별기획 |

내용들을 총 정리하여 <2006년도 NHK '약속' 평가>란 백서를 내놓았다.

이 백서에는 NHK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형식적인 백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NHK의 가장 큰 현안은, NHK란 레테르를 달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해이해진 사회 기강이다. 즉 제작비, 취재비, 출장비 같은 개인적 비리, 그리고 일본국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압력수단인 NHK경영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원성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과거 영화롭던 그 위상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과거 뜨거운 인기를 모았던 대하드라마 '사극'을 연이어 제작하고 있다. 극심한 불황에 빠진 일본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일부러 '기획작품'으로 일본근대사에 영웅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

이미 일본의 근대사를 열었던, 33세에 암살당한 메이지 유신시대의 풍운아 사카모토 료마를 주인공으로 한 <료마전>이, <천지인> <언덕 위의 구름>에 이어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일본근대사의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드라마화하는 이유는, 경기침체에 빠진 일본인들을 자극하여 용기를 갖게 하자는 것. 이것은 공영방송사인 NHK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다.

특히 <언덕위의 구름>은 청일전쟁에 이은 러일전쟁에서 승리, 자신감을 얻은 일본이 그 세력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과정을 그린 대하드라마다. 일본현대문학의 거성 시바료 타로가 10년에 걸쳐 완성한 대하소설로, 일본에서 1,80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작품

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코 찬동할 수 없는 스토리 투성이다. 일본의 명문대인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이면서 1만엔권 지폐에도 그 얼굴이 등장하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탈아론(脫亞論)을 주창하기도 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오늘날 우익세력의 원조이기도 하다. 당



▲ <언덕위의 구름>의 한장면



▲ <언덕위의 구름>제작발표 현장에서 주연배우인 아베 히로시와 마츠 다카코

시 조선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 ‘미개한 문명’ 으로부터 개화시켜 일본을 주축으로 하나의 대동아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을 합리화 시킨 것이 바로 이 <언덕위의 구름>이라는 드라마다. 이를테면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대하드라마로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우리에게 결코 유쾌한 드라마가 아니다. 그래서 일본인조차도 이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다름아닌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역사의식이 또렷한 진보성향의 일본인들.

최근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교과서 기술 삭제 등 과거 민주당답지 않게 우경화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현 일본정부의 태도와 맞물려, 공영방송사인 NHK드라마마저 계속해서 영웅 시리즈를 내보내, 자칫 잘못하면 과거 일본인들이 갖는 대향수인 ‘대동아전쟁(일본인식 표현)’을 그리워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러한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

이렇듯 최근 공영방송 NHK가 보이는 행보는, 계속 제작되고 있는 대하드라마 ‘사극’을 통해, 과거 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누렸던 ‘영광’을 되새김질함으로써 ‘우향우 회춘술’ 시도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는 일본의 대하드라마를 그냥 드라마로 보지 못하는 그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 독립운동 |

역사에 모든 것을 내던진 민종식(閔宗植)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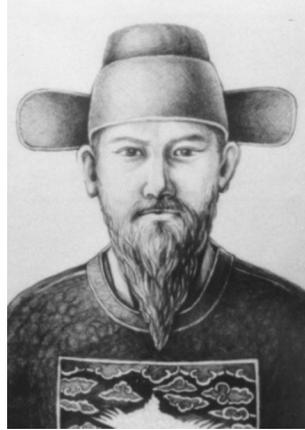
선생은 철종 12년(1861) 3월 경기도 여주에서 민영상(閔泳商)과 기계(杞溪) 유(俞)씨 사이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났다. 부친은 명성황후의 조카뻘로 문과에 급제하고 충청도관찰사를 비롯하여 이조·호조·예조·형조·공조판서를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광무황제의 신임을 받은 관료였다.

선생 역시 약관 20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체구가 비대하고 얼굴이 크며 성긴 구레나룻”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문신이면서도 동시에 무인의 풍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생은 이조참판을 역임하는 등 종2품에까지 올라 탄탄대로의 벼슬길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배에 의해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 선생의 인생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운명을 바꾼 치욕의 사건이면서 선생 개인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때문에 선생은 미련 없이 관직을 버리고 어려서 살던 충청도 정산으로 낙향하였다. 그러나 낙향 후 1년 만인 1896년에 모친을, 1899년에는 부인과 사별하였으며, 이어서 1901년에는 부친마저 떠나보내고 말았다. 선생은 1904년 한산 이씨 이은식(李殷植)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편안한 생활을 거부하고 항일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 처남인 이용규와 이남규는 의병의 동지가 되었다. 홍주 을미의병의 총수였던 김복한(金福漢)과 이설(李奭)이 을사5적의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기를 위하여 상경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은 하인을 데리고 상경하였다. 서울 전동의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설에게 상소문의 초안을 의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익과 민영휘 등 여흥

민씨의 당대 고관들을 만나 상소의 일을 의논하였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상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그만 두라는 권유만 받았다. 게다가 이설과 김복한이 체포, 구금되고 이설이 작성한 상소문마저 압수당하자 충남 정산으로 돌아왔다. 선생은 낙향하여 의병의 봉기를 계획하였다. 마침 홍주 을미의병의 주도자로 홍주향교 전교를 맡고 있던 안병찬(安炳瓚)이 홍성·청양 일대의 재지 유생들과 함께 의병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생은 의병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의병장에 오른 선생은 가산을 팔아 군자금 2천원을 마련하여 군수품으로 제공하였다.



▲ 민종식 의병장

선생은 의진의 근거지를 자신이 거주하는 정산군 천장리로 삼고 의진의 편제를 정비하였다. 이때의 주요 인물로는 안병찬·채광묵·박창로·이용규·홍순대·박윤식·정재호·이만직·성재한 등이 있다. 의진 편성을 마치고 선생은 1906년 3월 15일(음, 2월 21일) 광수장터(현, 예산군 광시면)에서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이때 참석한 의병은 600여명에 달했다. 우선 대장단을 세워 천제를 올리고 이튿날 바로 홍주로 향하여 홍주의 동문 밖 하우령(일명 하고개)에 진을 쳤다. 선생은 홍주성 안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잡아오면 머리하나에 1천냥을 상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홍주성 공격을 명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저항에 오히려 대장소마저 위태롭게 되어 다시 마을 밖으로 나와 진을 쳤다. 다음날 이세영(李世永)이 의진에 당도하였다. 홍주 을미의병에 참여하였다가 군대에 들어가 계급이 부위에까지 오른 그의 참여는 의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선생은 회의를 개최한 후 다시 광수장터에서 군세를 바로잡고 병사들을 훈련시켜 공주관아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선두부대가 묵방(일명 먹고개, 현재 청양군 비봉면 중목리)에 이르렀을 때 공주 병력과 경병 300여명이 청양읍에서 휴식중이라는 척후병의 보고가 들어왔다. 의병은 진로를 화성으로 옮겨 합천 일대에 진을 쳤다. 이날 관군과 일본군은 오후 6시 먹고개에 도착하여 탐문하고 10시경 합천 인근으로 쳐들어와 잠복하였다. 다음날(3월 17일) 오전 5시 의병진은 이들로부터 기습을 받아 안병찬과 박창로 등 23명이 체포되었다. 안병찬은 이남규 등의 노력으로 선생이 홍산에서 재기하기 4일전인 5월 5일(음, 4월 12일) 석방되어

| 독립운동 |

의진의 참모사로 다시 종군하였다.

합천전투 이후 선생은 각지를 잠행하다가 전주의 친족인 민진양(閔晉錫) 집에서 지내던 중, 조상수(趙尙洙)·이용규·이세영·이상구(李相龜)·이봉학(李鳳學) 등과 재기를 협의하였다. 그리고 각지에서 바람처럼 모여든 60여인과 함께, 5월 9일(음, 4월 16일) 충청남도 홍산군 지터동의 주막에서 거의하고 대장에 추대되었던 것이다. 홍순대의 <해암사록>에는, “산과 들을 헤매면서 왜놈의 눈을 피했던 의병들이 4월 19일 홍산군 내산면 지치리에 다시 모였다.”라고 패산했던 의병들이 선생의 재기 소식을 듣고 다시 홍산에 모여들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때 선생은 선봉에 박영두(朴永斗), 중군장에 정재호(鄭在鎬), 후군장에 정해두(鄭海斗)를 임명하였다. 다시 봉기를 가능하게 하는데 처남인 이용규의 역할이 컸다. 이용규는 합천싸움에서 패한 뒤 전주·진안·용담·장수·무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았으며, 서천과 인근의 남포·오천 등지에서도 의병 모집 활동과 함께 식량을 준비하였다.

5월 13일(음, 4월 20일) 선생은 의병을 이끌고 서천읍을 공격하였다. 관아에 돌입한 의병 부대는 서천군수 이종석(李鍾奭)을 감금하고 양총 등 무기를 획득하였다. 이때 선생은 군수의 인장을 이용하여 의병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다음날 비인을 함락하고 남포에 가는 도중에 일본인 한 명을 체포하였으며, 남포에 들어가 읍성을 공격하였다. 선생이 지휘하는 의병 부대의 공격에 관군은 요새인 남포읍성을 지키며 방어하였고, 나중에는 공주의 관군까지 합세하여 반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간의 전투 끝에 선생의 의병부대는 승리를 거두었다. 남포군수 서상희(徐相喜)는 잡아 감금하고 관군 31명을 의병진에 귀순시키고 군량을 확보하였다. 이때 남포의 유생 유준근이 유회군(儒會軍) 33명을 거느리고 와 합세함에 그를 유병장(儒兵將)으로 삼았다. 그 후 남포부근의 용동에서 일본인 2명을 체포하여 1명을 총살시키고, 이어서 광천에서도 일본인 6명을 체포한 뒤, 결성에서 하루를 지냈다.

선생이 이끈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공격한 것은 홍주 장날인 5월 19일(음, 4월 26일)이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의병부대는 홍주의 삼신당리에서 일본군과 싸워 이기고 구식 화포 2문을 선두에 내세워 홍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의병부대의 우세한 공격을 당해내지 못한 일본군과 관군은 북문을 통해 덕산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드디어 홍주성이 의병들에 의하여 탈환된 것이다. 선생의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보군·신현두·이식·안항식·김상덕·유호근 등 명망 있는 지방 유생들이 의병을 초모하여 차례로

입성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은 총 맨 자 600여명, 창 가진 자 300여명, 유희군 300여명 등 모두 1,200여명에 달했다.

홍주성을 점령한 뒤 선생은 의진을 새롭게 편제하였다. 의병 지휘부는 충남의 서북부 지역 인사가 중심이 되었다. 특히 선생이 거주하는 청양 출신의 인사가 많았다. 정산면의 박윤식·이식, 화성면의 안병찬·안병립 형제, 안향식·채광목, 임한주·임승주 형제, 장평면의 이세영·김덕진, 한태석·한훈 형제 등이 그들이다. 이들 외에도 예산의 이남규·남규진, 보령의 유준근·신보규·신현두, 부여의 이용규·이상두, 해미의 박두표, 온양의 곽한일 등이 있다. 선생은 각 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양식과 군기의 징발과 징병의 일을 알선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해미 군수만이 포군 10명과 약간의 군자를 보냈다.

홍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선생은 광무황제에게 상주문을 올리고자 하였음이 밝혀졌다. 즉 선생은 상주문을 작성하여 이민학(李敏學)에게 주어 광무황제에게 올리게 하였던 것이다. 상주문의 내용은 을사오적과 이등박문의 처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거기에는 거병(擧兵)한 이유를 들면서 의병을 일으킨 뜻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민학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홍주성이 일본군 수중에 떨어짐으로써 이 계획은 중지되고 말았다.

홍주성에서 패주한 일본군은 공주병력을 지원 받아 20일부터 홍주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선생의 의병부대는 이를 격퇴하였다. 21일은 수원 헌병부대로부터 파견된 헌병과 경찰 혼성부대를 패주시키자 22일에는 서울 경무고문부의 배원(排原)경시와 조선 경무관 및 그 부하 20명이 증파되어 왔다. 이들은 24일 공주 진위대에서 파견한 57명의 관군과 함께 의병을 공격하였다. 27일 동원(桐原)경시는 토방(土坊)경부와 한국인 경찰 송충순에게 순사 5명을 팔려 서문 밖을 정찰하도록 시켰으나 이들은 오히려 의병에게 체포되었다. 선생은 29일 밤에 선봉장에 명하여 체포한 일본인 3명과 일진회원 2명을 총살하였다.

이와 같이 몇 차례의 일본경찰과 헌병대의 공격에도 전세가 의병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통감 이등박문은 한국주차군 사령관에게 군대파견을 명령하였다. 사령관 장곡천의 명령을 받은 일본군 보병 제60연대의 대대장 전중(田中)소좌는 보병 2개 중대와 기병 반개 소대 그리고 전주수비대 1개 소대를 거느리고 30일 홍주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 독립운동 |



▲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민중식 의병장 유허비

일본군은 우세한 화력과 전투경험이 많은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전중소좌의 지시에 따라 30일 밤 11시에 동문에서 약 500미터 지점의 숲 속에 잠복하였으며, 31일 새벽 2시 반 기마병 폭발반이 동문을 폭파시켰다. 이를 신호로 하여 일본 보병과 헌병대, 경찰대가 기관총을 쏘며 성문 안으로 침입하였다. 또한 2중대 1소대와 4중대 1소대는 각각 갈매지 남쪽고지와 교동 서쪽 장애물 도로 입구에서 잠복하여 의병부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31일 새벽 4시경 홍주성은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다. 일본군은 기마병을 시켜 의병을 추격 사살해 하였다. 이때 양민들 역시 다수가 희생되었다. 이와 같이 의병과 양민 수백 명을 학살한 일본군은 홍주지역에 일본인을 이주시킬 것을 계획하였었다. 이때 선생은 홍주성을 탈출하게 되는데, 피체된 후 진술한 공초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 9일(31일) 미시(未時) 동문에 폭파 소리를 듣고 적정을 정찰토록 할 때 이미 일본군이 진격한다는 급보를 접하였다. 탄환이 비오듯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술책이 다하여 남문과 서문 사이의 성벽을 넘어 창의대장의 인장과 기록 등을 모두 버리고 도주했다.

위에서 우리는 홍주성 전투의 치열함과 그 와중에 선생이 남문과 서문 사이의 담을 넘어 탈출한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의병장의 인장과 모든 기록도 버리고 탈출하기 바빴던 선생의 모습은 홍주성 전투의 처절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측이 10여명 사살된 반면 의병 측은 참모장 채광묵 부자와 윤량관 성재평과 전태진·서기환·전경호

를 비롯, 여기에 학살된 양민의 수를 합하면 300여명에 이른다. 붙잡힌 의병 수도 145명에 달한다. 그 중에 김상덕 등 78명은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들은 일본군 사령부의 심문을 받은 뒤 윤석봉 등 70명은 7월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유준근·안항식·이상구·신현두·이식·남규진·최상집·문석환 등 9의사는 대마도로 유배되어 감금생활을 하였다. 이세영은 6월 붙잡힌 뒤 겨울에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고 황주의 철도에 유배되었다.

홍주성전투에서 패퇴한 선생은 성을 빠져 나와 재기를 도모하였다. 처남인 이남규의 도움을 받아 11월 20일 예산을 공격하여 활동 근거지를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11월 17일 새벽에 일본헌병 10여명과 지방병 40여명, 그리고 일진회원 수십 명의 습격을 받아 곽한일·박윤식·이석락 등이 체포되었다. 이남규·이충구 부자도 함께 체포되어 온갖 악형을 당하였다. 선생은 다행히 미리 공주로 피신하여 화를 면했으나, 결국 11월 20일 붙잡히고 말았다.

붙잡힌 뒤 선생은 12월 7일과 25일에 모두 4차례의 심문을 받았는데 일본 경찰은 계속하여 궁중과의 관련을 추궁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생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이때 심문한 일본 경찰이 “완미(頑迷) 과묵(寡黙) 침착(沈着)한 태도로 진술하면서도 타인에 누를 끼치는 것을 피하였다”고 선생의 진술 태도를 알려주고 있어 비록 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지만 의병장으로서 의연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은 1907년 7월 3일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음날 내각회의에서 종신유배형으로 감형되어 진도에 유배되었으며 12월에는 융희황제의 즉위를 맞아 특사로 석방되었다. 풀려난 후 선생은 1911년 여주 영릉에 있는 수 만평의 토지를 개간할 계획을 세우다가 처남인 이남규의 만류로 그만 두었다. 1917년 6월 26일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나 총독부에서 “폭도대장(暴徒大將)”이라 하여 선영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3개월 만에야 간신히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의 선영에 묻혔다.

선생은 명문가의 후예로 모든 영달이 보장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시해를 계기로 항일투쟁의 길에 나서 1906년 홍주의병의 의병장으로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본군을 처단하는 등 일제의 침략에 항거한 공훈을 세웠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민중식 선생의 체포에 관한 오해와 진실

신명식 |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동농 김가진의 유해가 해방된 지 65년이 넘도록 고국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있다. 동농의 유해가 묻힌 만국공묘 일대는 쑨원의 부인인 쑹칭링의 능원으로 바뀌어 성역과 같은 곳이다. 문화대혁명때 비석마저 없어졌으니 무덤의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다. 동농 후손들의 힘으로는 유해를 찾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농의 후손들은 동농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몇 차례 신청했지만 번번히 기각됐다.

1995년에는 1심에서 2등급 대통령장이 결정됐지만 2심에서 번복되고 말았다. 국가보훈처는 “1906년 11월 의병장 민중식(閔宗植, 1861~1917)이 공주에서 체포될 당시 동농이 충청남도관찰사로 있었다.”라며 서훈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식이 이끄는 의병과 전투를 벌이고, 민중식 의병

장을 체포한 자들은 일본군 헌병과 일본 경찰이다. 민중식은 명성왕후의 척족으로 1906년 5월 충청남도 홍주에서 거병을 했으며, 초기에는 상당한 전과를 올렸으나 11월 일진회원의 밀고로 일제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김가진은 관찰지역에서 체포된 민중식을 중앙의 명령에 따라 서울로 압송하였을 뿐이다. 황현이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김가진의 관군에게 민중식이 체포됐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매천야록에는 동농에 부정적인 표현이 여러 곳 등장하는데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의 갈등이 엿보인다.

민중식은 법부대신 이하영의 주선으로 사형을 면했으며, 순종이 즉위하자 진도(珍島)로 종신 유배됐고 한 달 뒤에 황제의 특사로 풀려났다.

일제의 문서는 민중식 의병장

의 체포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준다.

“(홍주성을 빼앗긴 일본군은) 한국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필요 병력을 파견하여 속히 진정시키고자 재촉하는 통지를 보냈음에도 시일을 끝 뿐이어서 伊藤 통감은 한국민에 대한 일본의 위신을 보이기 위해 주차군사령관에게 출병을 명하였다…… 민중식은 이후 (홍주성에게 탈출한 후를 말함) 오랫동안 그 종적이 묘연하다가 우리 헌병과 경찰관이 주도한 수색에 의해 11월 20일 공주군 탑산리(대교 동방 약 1리)에서 포박되었다.”

(朝鮮駐劄軍司令部, 1913.3 『朝鮮暴徒討伐誌』, 19~22쪽에서 인용)

동농의 서훈이 논란이 될 때 민족문제연구소는 민중식 의병장의 체포에 동농이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며, 이런 논란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바 있다. ㉠

레지스탕스 영화 읽기



영화

〈황토지〉와 〈붉은 수수밭〉,

중국 대륙의 풍광과 민족영화



이두희 | 자유기고가

중국, 1937년. 대장정을 마친 이듬해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 함께 항일전쟁을 위한 두번째 국공합작을 맺었다. 이제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개칭한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는 산시성의 옌안을 거점으로 항일전의 최전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서 다시 수백킬로가 떨어진 어느 벽지 마을로 한 병사가 찾아온다. 해방을 위한 전쟁에서 자신들의 부대가 부를 수 있는 군가를 만들고자 구전민요를 수집하기 위해 온 것이다. 1939년 이른 봄, 영화 〈황토지〉의 시작은 이렇게 어느 가난한 농가에 머물게 된 한 군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레지스탕스 영화 읽기

영화의 한 장면, 마침 그 날은 마을 어느 집 여식의 결혼식 날이었다. 잔치 와중에 근사한 축하를 부른 청년을 보며 군인이 말한다. “노래를 잘 부르는군요.” 그러자 다른 이웃이 답한다. “정말 안된 친구지,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영화 <황토지>의 그 곳에서 노래란 그저 부르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삶에 대한 비탄을 부르는 노래였다. 만일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을 위한 노래인 것일까. 영화의 이야기는 다시 군인과 한 소녀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군인은 소녀에게 자신이 온 남부에서는 여자도 글을 읽고 남자와 같이 일을 한다고 말하고, 소녀는 스스로 바느질을 하는 군인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곳의 삶은 그들에게 그 이상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게 한다. 매일 저녁 군인이 밭을 씻는 물은 소녀가 10리도 더 먼 곳으로부터 한 동이씩 길어온 물이고, 소녀가 그해 늦은 봄 지참금에 팔려 시집을 가리라는 것을 군인은 아직 알지 못한다. 영화는 많은 시간 그들이 놓인 환경을 풍경과 섞어서 보여주고 있다. 거침없이 흐르는 누런 강물, 무엇하나 사람이 일구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대지, 수평선은 변함없이 하늘과 땅을 나누고 내리 누른다.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서있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사람들뿐이다.

우선 이 영화에 담긴 한 가지 시선은, 새로운 세상과 해방을 바라는 군인이 문득 자신 앞에 펼쳐진 자연의 광막함과 인간의 가난을 맞닥뜨리고 잠시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시선이다. 이상을 품었기에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는 소녀와 맺는 다시



▲ 황토지



영화 <황토지> 속의 절제된 이야기와 과묵한 그림 속에는 이와 같이 어딘가 조금은 위협스러운 만큼의 순수한 질문들이 있다. 아마도 그것이 팔로군 병사를 다룬 소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이 영화에 상영금지 처분을 내렸던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돌아오겠다는 약속 앞에서 잠시 주저하고 망설인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시선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것이 아무리 지난한 길일지라도 용기를 내서 운명에 맞서려는 소녀가 바라보는 시선이다. 하지만 영화는 소녀의 운명에 대해서는 무거운 침묵으로 답할 뿐이다. 과연 그들에게 해방은 무엇이고 혁명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메마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가난한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먼저 받았던 지참금 때문에 결혼을 하는 소녀에게, 전쟁과 승리를 위한 군가를 찾는 군인이 무슨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가. 다만 그들이 말하는 어딘가 있다는 더 나은 삶이란 이들에게 지금의 삶이 단지 고통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만은 아닌가. 영화 <황토지> 속의 절제된 이야기와 과묵한 그림 속에는 이와 같이 어딘가 조금은 위협스러운 만큼의 순수한 질문들이 있다. 아마도 그것이 팔로군 병사를 다룬 소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이 영화에 상영금지 처분을 내렸던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무엇보다 1939년 식민지 해방전쟁 중이던 중국과 영화가 만들어진 1984년의 중국 사이에는 가까워지기 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역사적 시차가 있었을 것이다. 첸카이거 감독 자신은 70년대 당시 중국 문화혁명의 격변기를 보냈고 실제 옌안지방의 농장으로 하방되어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가 영화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의 첫 작품 <황토지>에는 그가 겪었던 당시 현실의 중국과 그의 영화 속 한 병사가 꿈꾸었을 중국 사이의 거리감이 암시되고 있다. 영화 속 혁명군의 높은 이상과 끝없이 펼쳐진 대지의 가난이 이루었던 대조는 이제 역사 속에서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묻는 질문이 되어 돌아온다. 다만, 그것은 체념 섞인 손쉬운 자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을 향한 아직도 가야할 길에 대한 차분한 다짐에 가까운 것으로서, 자신들의 국가 건설에 대한 이상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감독의 선택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중국 영화의 시작이었다.

레지스탕스 영화 읽기



▲ 붉은수수밭 타이틀 화면

영화 <황토지>의 촬영을 맡았던 장이모 감독은 곧 <붉은 수수밭>(1987)을 통해서 자신의 첫 작품을 연출한다. 이 영화는 화자가 고량주를 만들던 양조장을 배경으로 한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작한다. 그리고 이야기는 점차 구전되어 오던 신화적 세계에서 일제 침략기라는 현실의 역사 세계 속으로 변모해가는 것이었다. 이 작품은 허구적이거나 중국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하나의 색깔을 부여하였고 그것을 영화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후 적지 않은 영화들이 때로는 이국적 정취나 때로는 미학적 과시를 통해서 당시 대표적 중국영화들로 해외 영화제들에 소개되었다. 문화적 단위로서 국가와 민족은 여전히 유효했기에 이 '미심쩍지만 불가피한' 개념으로서 민족영화가 현실적으로도 존재했다. 80년대 당시의 이 중국영화들이 어쩌서 일제 침략기 시대의 이야기를 그 소재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당시의 영화적 지형에서도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영화 전통에서 벗어난 모든 영화가 3세계 영화로 자리매



김 될 때, 당시 아시아의 영화는 아무리 사적이더라도 이미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해석으로 이해되어야 할, 다시 말해 탈식민주의의 알레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화 <황토지>와 <붉은 수수밭>이 보여주는 대륙의 풍광에는 20세기 후반의 중국과 함께 중국 영화의 자기자리매김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세상은 다시 빠르게 변해갔다. 두 감독의 사회적 입지도 변했다. 한때 검열로 상영이 금지 당하던 영화를 만들던 감독들은 국경을 넘어 국적도 없는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중국의 국민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 다시 대륙에서는 <스틸 라이프>(2006)의 지아 장 커 감독을 비롯한 새로운 세대의 감독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21세기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란 또 어떤 것일까. 우리는 다른 영화들의 다른 풍광을 다시 기다려볼 수 있을 것이다. ㉠

|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의 광대, 임진택 선생을 만나다!

박상희 | 학생편집위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인사동 경인미술관에 있는 '전통다원'에서 임진택 선생님을 만났다. 인사동과 전통다원, 전통차 그리고 선생님의 개량한복, 고즈넉한 미소, 구수한 목소리가 잘 어울렸다. '향토적인 그'와의 인터뷰는 판소리를 듣는 듯 했고 진지했으며 유쾌했다. 선생님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라 그때의 일들을 세세하게 부연설명까지 덧붙여 들려주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편한 어투로 적겠다. 지금부터 그의 사설이 시작된다.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의 광대

5월 · 6월호 · 33

|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

영화 출연뿐만 아니라 각색까지 한 약력이 있기
에 영화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가 각색한 작품 중에
이장호 감독의 [낮은 데로 임하소서]와 [과부춤]이
있다.

“영화 [과부춤]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판소리적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어.” 영화 [바람불어 좋은날]
에 상여객으로 출연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이장호 감
독 그리고 장선우 감독과 함께 영화의 미학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 선생은 한국적인 영상미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나라의 영화 표현양식을 그대로 가
져다 쓰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듯하다.

“한국적 영상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한
국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 같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었지”

임권택 감독이 영화 [서편제]를 통해 흥행에 성공
했고, 판소리를 알리는 데 공헌은 했지만 소재자체
가 판소리에 관한 것이고 주인공이 판소리꾼일 뿐
이지, ‘판소리적 영화’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
곳과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의식을 갖고 있는 표
현양식에 주목을 한 것이다.

[서편제]가 개봉하고 14년이 흐른 후, 그는 임권
택 감독과 영화 [천년화]을 통해 만난다. “출연도
하며 도움말도 드렸지만, 판소리적인 영화를 구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봐. [천년화]에서 판소리의 미
학이 연결되면 어떨까? 라는 고민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실패했었지.”

“한국적인 영화... 연극 같으면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민중적 내용을 민족적 현실에’라는 구호를 갖
고 창안하고 실현한 것이 마당극이었어. 판소리라
는 양식을 갖고 현대의 사건과 시대의식 그리고 내
용을 담아내는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려고 해온
것이지. 그동안 안하고 있다가 다시 분발하기로 한
거야.”

그는 현재 12바탕의 창작 판소리를 추진중이며,
그 첫 번째 작품이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이다.

**학부 때 전공한 외교학과 판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는데?**

“내가 외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백범김구선생
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전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판소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해봤어. 엄두도 못냈지. 작년에서야
생각이 난거야. 작년이 백범선생님 서거 60주년이
었고, 12바탕 판소리를 만들려고 하던 중에 이 60
주년을 그냥 놓치고 가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늦었
지만, 작년 6월26일 서거 60주년 되는 그 날에 제
작발표회를 하게 된거야.” 그 후 지난 2월24일에
공개 시연을 했고, 본격적인 공연으로는 3월 천안
에서 한번, 서울에서의 첫 공연을 4월 12일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날짜를 기왕이면 의미 있는 날로 잡기 위해 임
시정부수립일인 4월 13일에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극장 사정상 4월12일에 할 수 밖에 없었어. 그런데
4월12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기도 해. 임시정부
수립시기를 4월11일로 보느냐 4월13일로 보느냐

논란이 있더라고.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는 13일로 이야기를 하고 일부학자들은 11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4월11일날 뭔가를 의결해서 13일 날 선포를 한 것 같아. 사람들마다 논란이 있어서 그 중간으로 날을 잡아 나는 공연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 그런데 이진 농담이야(웃음)”

‘창작판소리 백범김구’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청년역정, 2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3부는 해방시대의 이야기이다. 1부는 왕기석 명창이 2부는 왕기철 명창이 3부는 임진택 광대가 노래한다. “1부와 2부는 백범일지에 근거하여 쓴 것이고 해방시대 이후에는 선생님이 직접 일기를 남기신건 아니잖아, 다만 어록이 남은 것이지. 그 어록이 사실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역사적 전개가 매우 중요한 해방시대를 한 시간 남짓 하는 짧은 시간에 담아내는데... 전공이 외교학과인 것이 매우 역사에 정확하게 근접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 가능하게 했지.”



김지하 시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던데, 판소리를 하게 된 배경은?

“김지하가 없었다면 지금의 임진택도 없었다고 봐도 되지. 아마 김지하를 만나지 않았다면, 외무고시를 보고 외교관의 길로 갔거나 아니면, 어쩔 내가 방송계의 개그맨으로 나갔을 지도 몰라(웃음). 그런데 김지하를 만났고, 연극을 만났고 우리 것 우리문화를 알았고 판소리를 알게 된 것이지.”

그는 나중에 그가 스승으로 모신 정권진 선생님

Who's he?

- 정권진 선생님을 사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 창작판소리 : 똥바다 / 오월광주 / 오적 · 소리내력
- 영화 : [바람불어 좋은날] 상여객 역
[천년학] 소리꾼 유봉 역
-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 역임
- 원판 장막창극 [춘향전연출 - 국립극장
- 마당창극 [비기비 명창 권삼득] 연출
- 전북도립국악원

|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

의 수궁가를 보자마자 Feel이 왔다고 했다. “탈춤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판소리는 재주가 필요하거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지. 바로 선생님을 찾아갔어. 지금 내가 창작 판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때의 필이 맞았지.”

광대 임진택, 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마당극의 효시**

김지하 시인의 ‘진오귀굿’이라는 최초의 마당극 대본을 갖고 참여를 했지만, 처음엔 공연을 못하고 다시 연출하고 출연도 해가며 제목을 ‘청산별곡’으로 바꿔 교회에서야 처음 공연을 했다고 한다. “공연하나도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연하나가 문화사적 사건이고 시대적 의미가 있는거야. 처음엔 서울 문리대에서 하려고 했는데 허락을 못 받아서 교회에서 겨우 하게 되거야.”

그는 거의 같은 무렵 새문안교회에서 박태순작가가 쓴 작품 <무너지는 산 : 광주 대단지 사건을 다룬 소설>을 가지고 연출을 도맡아 마당극을 올렸다. 일찍이 그는 “밥”이라는 작품을 연출했는데 마당극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85년도의 작품인 “밥”은 현재까지도 마당극 공연이 계속 되고 있다.

마당패를 운영하지 않은지 오래된 그에게 하고 싶은 몇 작품이 있었다는데...

“대개 마당극이 좀 시사적인 작품이 많거든. 특히, 지역에 있는 패들은 그때그때 사건이 나면 바로 바로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 예를 들면 ‘4대강문

제’ 같은 것이지. 그런데 요새는 4대강 이런 걸로 제대로 작품이 만들어 진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예전에 기동성있게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정치적 성격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 움직이던 그런 기운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 지금 당장에 ‘4대강문제’를 갖고 마당패가 돌고 있어야 되거든.”

그는 그 이유를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려면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의식을 가진 패들은 그 작품을 순발력있게 작품성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작품성 있는 마당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은 우리 시대 가장 초미의 주제인 ‘4대강’ 과 같은 것을 해야겠다는 긴박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용산참사사건 이런 것도 마당극에 나와야돼. 그게 이제 전에는 내가 맨 처음 시작했던 박태순 작가가 소설로 쓴 ‘광주대단지사건’이 ‘용산참사사건’과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 이슈였지. 박태순 작가는 소설을 쓴 것이고 우린 그걸 가지고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기존 연극의 고급한 양식, 준비된 양식(여건을 갖추어야 할 양식)을 갖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 학교에서 극을 못 올리게 해, 교회에 가져오면 교회에서도 못 하게 해. 그래서 마당극을 한 거야. 마당극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겨났어.”

>> 창작판소리의 독보적 존재

누군가가 왜 임진택선생이 창작판소리의 독보적 존재냐고 묻는다면, 그의 답은 “전무후무하니까.” 전에 계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으니 전에도 없고 후



▲ 창작판소리 백범김구의 광대 임진택 선생

에도 없을 리 밖에.

제대로 된 축제를 시도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축제 총감독

“원래 축제가 민중의 자발성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온전한 축제인데, 축제는 재정이 필요하고 도나시에 매년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그 단체장들 눈치를 봐야하고 어느 면에서는 거기에 줄을 서고 빌붙어 줘야만 일이 되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중단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의 지난 노력들로 축제라는 것이 매우 정치적인 것 즉, 축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사실은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하게 됐지만 반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

람들도 그걸 많이 알아채고 그걸 이제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지.”

그와 축제와의 첫 대면은 1981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풍81’ 관제 축제를 거부하고 나온 것이 첫 번째로 축제와 관련된 일인데 그런 축제를 해서는 안되는 거였지.”

마당극의 매력은?

문대극은 천동설 연극이고 마당극은 지동설 연극이다? 무대에 올라가야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동설 지지자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이고 지동설은 관객과 모이는 판 자체가 등근 것이 원래 원리라고 했다. 그 원리 안에 모든 역학 관계가 있고 마당극에서는 그 우주적 역학관계가 성

|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

립된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 들인다고 했다. 인력과 장력의 관계처럼.

“마당극이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공연하는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관여 되는 것이고 반응 하는 것이지. 추임새 같은 반응까지도 다 극으로 통합되어 살아 생동하는 판을 마당극이라고 할 수 있어. 마당극은 직업인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학생들이건 농민들이건 연극인이 아니어도 내 문제를 내가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공동작업을 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 셈이지.”

12바탕은 언제쯤 완성되는지?

“많이 걸리면 12년 걸릴 것이고 적게 걸리면 6년이 걸릴 거야. 앞으로는 한해에 두 작품은 해야지. 한해에 한 작품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이지. 하지만, 12작품은 지금 잡아 놓기를 세종대왕에서부터 녹두장군이란 인물들을 꼭 정해 놔는데. 어떤 분이 우선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김구선 생님 다음 작품으로 준비하는 것은 전연 뜻밖인데 남한산성을 준비하고 있거든. 뭐를 먼저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꼭 하고 싶은 작품은 세종과 한글 판소리지. 녹두장군 것도 꼭 하고 싶고, 다산 정약용을 통해서 목민심서나 경세유표에서 남기신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싶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백범김구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백범 김구선생님을 내용으로 판소리를 만든다는 자체를 예전에는 엄두도 못냈는데, 작년에는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생겼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해방시대에 살아오신 여러 인물들 중에 어느 인물을 잡아야하는 가에 있어서 나 자신이 조금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거든.

특히 나로서는 백범선생과 몽양선생중에

“내가 만약 판소리를 만든다면... 판소리는 절규이기 때문에 내가 판소리에 담겨있는 인물과 나를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으면 소리를 할 수 없는거야. 그래서 내가 외교학과를 전공했고 현대정치사가 나에게 전공과목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서기까지를 기다렸단 말이지.

거기서 내가 나 자신을 일치시키고 절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사상적 경향의 스펙트럼 안에서 어느 노선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판단의 요구가 필요했고 기다렸지. 지금 “백범선생님이야”라고 하는 것은 노선을 포함해서 그 분의 일생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 그가 살아온 여러 가지 내력과 오직 일편단심으로 변하지 않고 추구해왔던 것들이 내 몸속에 내가 일치시킬 수 있는 내 믿음으로 내가 외치고 절규할 수 있는 그것을 가졌을 때만 판소리가 가능하데. 작년에 그 확신을 가졌던 것이거든.

지금 우리나라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진보니 보수니하는 문제, 개혁의 문제 등등을 포함하고 남북의 문제에서 북쪽에서는 백범선생을 안중근의사 만큼 평가하지 않잖아. 안중근 선생님은 이념분쟁이 생기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추대하지. 그러나 백범선생은 그 술한 이념의 분쟁 속에 계셨던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분단이 됐던 거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야. 매우

“백범김구선생의 고귀한 뜻과 정신은 오천만 우리 겨레 가슴마다에 새겨있고,
시대마다 새 싹이 돋고 새 움이 틀 것인즉 선생님 가신 발자국 따라
아름답고 힘찬 그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세.
자주 민주 평화 통일 문화 상생의 새 역사를 열어보세.”

어려운 정황이 있으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범선생은 복잡한 상황속에서 선택을 한 것인데 그것이 좌우로부터 다 공격을 받는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이 부분을 내가 일치시켜서 외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내가 이 판소리를 하게 된 계기야.

“얼마 전에 건국논쟁도 있었잖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운동의 결과로 생겨났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의 초안이 실제로 1948년도의 헌법초안의 기초가 되어 있고 우리 헌법상에도 임시정부의 법통문제나 3.1운동의 법통까지 헌법자체가 이미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위치에 있는 것이 추후로도 절대 소홀히 다루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이런 점에서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행사와 연관해서 이 공연을 그 날에 같이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던 거야.”

4월 12일 저녁 정동극장의 객석은 창작판소리 백범김구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로 입석까지도 가득 찼다. 마당극의 미학에 대한 말을 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관객과 창하는 사람과의 우주적 역학관계. 추임새는 “얼씨구”, “좋다”, 심지어는 “아멘”까지 나왔다. 창하는 사람과 관객이 함께 목이 타고, 함께 만세를 외치고 박수를 치며, 언제고

관객은 극 속에 관여 했다. 백범선생이 학교를 세워 나이 먹은 학생도 다 불러 모아 교육하는 대목에서 발끈하는 나이 먹은(?) 학생도 있었다. 백범 선생님이 북으로 가기위해 자택을 탈출하는 대목은 한 손은 땀을 한 손은 배꼽을 쥐게 했다. 백범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절절히 흐르고 있었다. 그 정신과 감동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마음과 미소에는 소망이 번졌다. “백범김구선생의 고귀한 뜻과 정신은 오천만 우리 겨레 가슴마다 새겨있고, 시대마다 새 싹이 돋고 새 움이 틀 것인즉 선생님 가신 발자국 따라 아름답고 힘찬 그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세. 자주 민주 평화 통일 문화 상생의 새 역사를 열어보세.” 광대 임진택 아니, 백범선생님은 외치고 있었다. 오는 6월 26일 오후 4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작판소리 백범김구가 다른 판으로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4월12일판과는 판판이니 또 가도 무방하리라.

향토적인 재담꾼 임진택 선생님과의 만남은 흥미진진했다. 개그맨 고영수와 개그를 겨룬 이야기에 서부터, 이청준작가와와의 인연, 마당극의 역사까지 다 나열할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하셨다. 사명을 쫓아 행복하게 소리하는 임진택 선생님의 12바탕 행보가 기다려진다. ☺

| 캠퍼스 라이프 - Campus Life |

우리가 모르던 중국 대학의 모습



김태균
한양대학교 사학과



▲ 중국대학생들의 군사훈련 모습

중국 대학생들의 군사 훈련 - 军训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짊어집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1학년 생활을 끝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많이 합니다. 그럼 중국에도 이런 국방의 의무가 있을까요? 중국의 군대는 한국의 군대와 경우를 달리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기 싫어도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할 통과 의무라고 한다면, 중국의 군대는 누구나 입대를 희망하는 곳입니다.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군대 전역 후에는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에 '군대'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학생 모두 원한다면 군대를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군 입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만 입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녀를 불구하고, 대학생 모두는 일정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을 军训

이라고 합니다.

입학의 기쁨과 대학 생활의 낭만에 젖어 있을 때인 1학년 학기 초에 중국의 대학 신입생들은 얼룩무늬 옷을 다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조교들의 통제 하에 약 한달에 걸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총을 들고 사격을 하고,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본적인 제식훈련 위주의 단체 활동을 주로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학기 시작달인 9월 캠퍼스 안에서는 우리 대학 생활에서 흔히 연상되는 모습이 아닌, 남학생·여학생 구분없이 군대 모습을 연상케 하는 군복을 입은 체 제식훈련을 하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몸소 느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军训의 기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교는 15일 할 수도 있으며, B라는 학교는 20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학교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것이죠. 军训의 기간도 우리 의무 복무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듯이,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중국의 대학생들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인 대학생들이 꺼리고 있으며, 军训을 제외 받고자 피병을 부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단, 제외를 받아도 제외 받은 학생들만 따로 모아 재교육을 합니다. 단지, 그 기간이 기존의 반으로 줄어들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军训의 활동 때문에 대학교 신입생들의 수업은 학기 시작달인 9월 달이 아닌 10월 달에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军训의 기간에는 어떠한 수업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9월 달에 중국 캠퍼스를 방문하신다면, 군복 입은 어린 대학생들의 제식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대학생들은 누구나 전원 기숙사 생활!

한국에서 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타지에서 온 학생들은 자취 및 하숙방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대학 등록금만 해도 매년 가파르게 올라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타지에서 온 학생들은 비싼 자취 및 하숙 생활비까지 가중되어 더욱 더 부모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는 한국 대학 내에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생겨난 현상입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생겨난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학은 정반대입니다. 부유한 집의 자녀들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나 부유한 집 자녀들이나 다 똑같이 같은 환경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중



▲ 기숙사 방안의 풍경

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그런지 중국의 대학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큼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재학 중인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면적은 27만6,587 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환학생으로 와있는 화중사범대학의 경우 면적은 132만 6,6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 수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말하자면, 제가 와있는 화중사범대학(중국 호북성 무한에 위치)의 경우 주변 학교보다 규모면에서 작은 학교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중국의 대학교들이 얼마나 큰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워낙 크다보니 학생들의 이동을 편하게 하고자 '校車' 라는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아파트도 학교 안에 존재합니다. 또한, 학생 식당을 비롯하여, 생필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형마트며, 사설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 또한 존재합니다. 즉, 학교 안에서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대학교입니다.

보통 한 학교당 본과생(本科生, 우리말로는 학부생)들은 2만명 정도 됩니다. 좀 더 유명하

“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등록금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들 눈으로 볼 때라는 가정아래이지요.
 이곳을 기준으로 1년치 등록금은 4,500元(한화 약 742,500원)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중국가정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 학생의 기준이며, 해외 유학생들의 등록금은 이것보다 곱절이상 비쌉니다.
 즉, 중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대학교의 실정입니다.

”

고, 규모가 큰 학교들은 본과생만 5~6만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모든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부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의 시설들은 상당부분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상당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학교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업에 몰두하기 편함과 동시에 생활측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와있는 화중사범대학의 1년 기숙사비는 인민폐 1,000元(한

화 약 165,000원)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등록금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들 눈으로 볼 때라는 가정아래이지요. 이곳을 기준으로 1년치 등록금은 4,500元(한화 약 742,500원)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중국가정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 학생의 기준이며, 해외 유학생들의 등록금은 이것보다 곱절이상 비쌉니다. 즉, 중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대학교의 실정입니다. ☺



◀ 중국대학교 기숙사의 복도 모습

| 100年 편지 |



▲ 김익한, 정정화 선생과 아들 자동

〈100年 편지〉 할머니 이야기, 장강의 도도한 물결이 되어

- 여성독립운동가 정정화 선생에게 손녀가 띄우는 편지

여느 아이들이 할머니의 품에서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저는 임시정부와 그 어르신들의 크고 작은 옛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다들 책에서 배우던 걸 직접 할머니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으니 커다란 행운이었지요. 할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34년을 보듬어 주셨지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한없이 아늑한 할머니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할머니, 오늘은 임정 생일이예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날이예요. 그래서 4월이면 넉넉하고 따뜻한 할머니 품이 더욱 그립고 임정과 독립운동 이야기들이 어제 들은 양 새록새록 떠올라요. 스무살 때 증조부님이 계신 상해까지 홀로 찾아 나선 일이며 독립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던 그 아슬아슬한 고비들, 그리고 안살림을 맡으며 임정과 함께한 만리장정... 그 슬한 이야기 속에 할아버지만은 나오지 않았지요. 왜 그런지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어요.

네 해 전 재북 애국지사 후손 성모단의 일원으로 북쪽에 계신 할아버지 묘소에 분단 이후 첫 성묘를 갈 수 있었어요. 평양으로 향하는 제 호주머니에는 할머니 묘소에서 떠온 한줌 흙이 들어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재북 인사 묘역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께 절을 올린 뒤 할머니 영정을 할아버지 사진이

담긴 비석 옆에 나란히 세우고 흙을 뿌렸어요. 남과 북의 흙이 합쳐지고 두 분의 한 맺힌 세월이 만나는 순간이었지요. 우리 모두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열한 살에 혼인해서 소꿉동무로 연인으로 동지로 40년을 함께 하셨던 할아버지와 분단으로 헤어지고, 홀로 지내신 40년 세월이 어떠했는지 저는 할머니 곁에 있던 34년 동안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긴 세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나 그립고 애가 탔을지, 얼마나 많은 날을 문풍지 스치는 바람에도 가슴을 쓸어 내렸을 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 해방된 조국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던 오히려 더 모질었던 그 세월을 할아버지와 겨우 한 줌 흙으로라도 만나 위로를 나누셨을까요. 할머니 평소 소대로라면 평양에서 할아버지와 나눈 이야기를 저에게 또 조곤조곤 들려주셨겠지요. 40년간 차마 말할 수 없던 이야기를...

평양을 다녀온 후로 내내 제 마음 한 편을 떠나지 않는 건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예요. '아이가 태어나 첫 울음을 울 때 그 아이의 일생을 누가 알겠는가.'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귀한 집 딸로 태어나 부귀영화는 커녕 독립운동 자금 품에 안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기를 몇 번이었던가요. 가

끔찍 제가 그 일기장을 꺼내 보곤 했다는 걸 할머니는 모르셨지요. 어느 봄날 할머니가 오래도록 써온 일기장을 태우시는 걸 본 제가 깜짝 놀라 말리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것을 남긴들 뭘 하겠느냐. 다 부질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굳이 다 태워 버리셨죠. 연기가 되어 날아가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저는 그저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어요. 고작 열다섯 살 어린아이였던 제가 할머니의 신산스런 마음 한 자락이라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요즘 세상에는 원칙이 없다’고. 할머니가 반평생을 바쳐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된 조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믿고 있어요. 강물은 절대로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듯이 언젠가는 임시정부가 꿈꾸던, 할머

니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 만들어야 한다고.....

할머니, 오늘, 임정 생일을 맞아 할머니께서 남긴 책 “장강일기”를 펼쳐 들어요. 다시금 읽어도 할머니 품에 안겨 처음 만났던 생동하는 독립운동 이야기들이 장강의 도도한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오랫동안 그치지 않는 젖줄로 흐를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 되기 전에 꼭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싶어요. 그날까지 평안하세요.

끝없는 그리움과 존경을 담아 손녀딸 선현이 보냅니다.

김선현
김의한 · 정정화 선생의 손녀
현 OTO대표이사

정정화(鄭靜和, 1900년 8월 3일 ~ 1991년 12월 2일)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가입니다. 시아버지 김가진 선생과 남편 김의한 선생의 뒤를 따라 홀홀단신 상하이로 망명한 뒤 독립운동 자금 모금과 임정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자서전 <장강일기(長江日記)>에는 임정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20세기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가 격조 높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편지를 쓰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100년(2019년)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또는 100년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가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100년 편지는 2010년 4월 13일에 시작해서 2019년 4월 13일까지 계속 됩니다.

100년 편지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100년 편지는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습니다
100년 편지를 보내주세요

원고지 7-8장 분량의 글을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로 채택된 글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minkook100@naver.com
문의 : 02-3210-0422 기념사업회 사무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 100년이 되는 그 날까지 100년 편지는 계속됩니다.

| 기념사 |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모임」을 기념하며...



김자동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오늘 일본땅에서 제일 동포가 중심이 되어 동양평화를 위한 모임을 갖는것은 특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동양평화의 중심은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에 3개국이 참된 호혜평등의 정신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이어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각자인 안중근의사께서는 이미 1백년전에 이러한 3국의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설파했습니다. 오늘날 유럽국가들의 공동체와 비슷한 구상을 그때부터 한 것입니다.

이런 평화주의자가 결국은 살인까지 한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자들은 동양의 평화가 아닌 동양의 지배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출발이 한국의 지배였던 것입니다. 불법으로 체결된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에 이은 1907년의 정미협약으로 한국은 이미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항거하여 전국각지에서 항일 의병이 봉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장력이 워낙 열악한데다 조직적이고 계획성있는 영도도 부족하여 1909년에 이르러는 대부분 일제의 잔학한 진압작전하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일제는 이제 한국을 아주 병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압작전과 학살에 이은 병탄작업의 총지휘자는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바로 동양평화를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안중근의사는 한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동양평화를 위하여 이토를 죽인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토의 길을 그대로 추진하여 안중근의사가 처형당한지 약5개월 후인 1백년전 8월에 한국을 병탄했습니다.

남·북의 양식있는 사람은 보다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상호의 적대의식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독재정권은 더욱 독재를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부패해 갔습니다.
전란복구를 위한 국제적 원조는 소수자의 배만 불렸습니다.

금년은 또한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터진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민주주의를 꽃피운 4월 혁명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전쟁도 결국은 일제의 침략 때문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전후처리 과정에서 생겨난 한국의 분단은 전쟁까지 일으켰을 뿐만아니라, 남·북 사이의 불신은 이 순간에도 동양의 통합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까지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동시에 남·북의 보다 극단적인 정치세력의 성장을 촉진시켜 서로의 불신과 적대의식은 자연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기 마련입니다. 남·북의 양식있는 사람은 보다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상호의 적대의식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독재정권은 전쟁으로 인한 적대의식에 그 기반을 강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은 더욱 독재를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부패해 갔습니다. 전란복구를 위한 국제적 원조는 소수자의 배만 불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항거하여 1960년 4월에 학생을 선두로한 거국적인 민중봉기가 일어나 독재는 타도되었습니다. 그 후 독재의 망령은 되살아나기도 하지만 민중 항쟁의 전통은 꺾지 못해 86년에는 다시 군사 독재를 후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4월혁명 50돌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전통을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6.15선언 10주년을 맞이하며 동양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는 한국의 분단극복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원하고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 이 글은 지난 4월 17일(토) 일본 도쿄 스이도바시(東京水道橋)의 재일한국 YMCA홀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모임」에서 본회 김자동 회장의 기념사 내용입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감동적이었던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공연



지난 4월 12일 (월) 오후 7시부터 정동극장에서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를 공연했다.

이번 공연의 예술총감독은 임진택 감독이, 사회는 본회 이두엽 이사가, 소리는 국립창극단의 왕기석, 왕기철 형제가 맡았다. 또한 임옥상 화백이 백범의 삶을 한 그루 소나무로 형상화해 병풍에 담았다.

백범의 삶을 청년역정, 임시정부, 해방시대 등 3부작으로 나눠 구성한 이번 공연에서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백범뿐만 아니라 교육자이며 계몽가, 그리고 통일운동가로 활동했던 백범의 다양한 삶을 만날 수 있다.

백범서거 60주기를 맞아 지난해 판소리로 제작돼 일반에게 공개되는 이번 공연은 우리 역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회원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다음 공연은 6월 26일(토) 백범기념관에서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다.

석오 이동녕선생 70주기 추모식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국무총리·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석오 이동녕선생 70주기 추모식이 3월 12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석오이동녕 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본회 김자동 회장, 김 양 국가보훈처장, 남만우 광복회 부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기도, 약사보고, 헌화·분향, 유족대표의 예사 순으로 진행됐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중국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식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 지난 3월 26일 (금)부터 28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남.북한 공동 추모 방문』행사가 중국대련에서 열렸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는 남북한 공동추모행사 및 대련수상경찰서, 안중근의사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여순 감옥, 여순 법정, 여순 박물관 등 견학, 대련 성당에서 남.북 국제 학술 대회「안중근의사 동양평화실천방향 연구」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사장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원, 임수경씨, 본회 이사인 김선현, 김진현씨 등과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등 북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참가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안 의사의 얼을 이어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것을 기약했다.

일본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모임」가져



6.15선언 10주년, 한국강제병합 100년, 안중근의사 순국 100년, 4.19 혁명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지난 4월 17일(토) 일본 도쿄 스이도바시(東京水道橋)의 재일한국 YMCA홀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모임]이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김희선 전 국회의원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김상근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후 기념강연으로 이와나미쇼텐「세카이」(岩波書店「世界」)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오까모토 아쓰시(岡本厚)의 ‘한국병합 100년과 현대일본, 그 이후의 100년’이라는 주제 강연과 릿교대학교(立教大學教)의 이시자카 고이치(石坂浩一) 준교수가 ‘병합 100년과 일본인의 과제’로 주제 강연의 시간을 가졌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산악회 소식



지난 3월 27일 (토), 독립정신 산악회가 인왕산으로 2010년 첫 산행을 다녀왔다. 김원규 신임 산악회장을 비롯해 회원 7명이 참여했다. 신임 산악회장의 취임 및 무사산행을 기원하며 시산제를 올리는 등 회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산행을 즐겼다.

그 다음 산행으로 4월 24일 (토) 북한산 산행을 가졌다. 구파발역 1번 출구에서 모인 회원들은

봄날씨의 북한산을 맘껏 즐겼던 즐거운 산행이었다.

독립정신 산악회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되고,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나갈 예정이다.

◆ 산악회 관련 문의 전화 : 02-3210-0411/0422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처

백범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1주년 기념식 열려

지난 4월 13일(화) 오전 10시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주요인사, 본회 김자동 회장 및 임시정부 관련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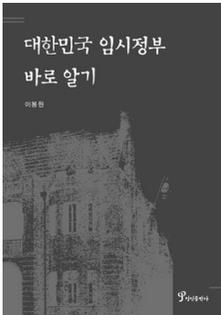
기념식은 김영일 광복회장의 약사 보고, 기념공연,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노래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 이어 11시 정각에는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김 양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장, 독립운동관련 단체장, 광복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 추념식」이 광복회(회장 김영일)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임정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알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 밖 중국에서 27년 간 존재하고 분투했다는 사실은, 일본이 그 기간 동안 한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책 속에서)

■ 본서는 임시정부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관련 사진의 가짓수에 놀라고, 사진의 치밀한 구성에 감탄한다. 본서에 수록된 3백여 장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27년의 임시정부사, 아니 치열했던 독립운동사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을 받는다.

오랫동안 임시정부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은 읽고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해설자의 내레이션과 체험자의 증언을 함께 엮어 나가는 다큐멘터리 기법을 써서, 보는 이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며, 읽고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이제껏 보지 못한 임시정부 관련 귀중 자료들도 다수 있어 임시정부에 관심을 가진 이에겐 ‘발견’의 기쁨을 또한 안긴다.

(광복회 회장 김영일)

■ 저자는 여러 해 동안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을 여행하며 기록영화까지 제작하는 열성을 가진 분이다. 금번 출간되는 이 책이 우리 국민이 특히 역사교사와 학생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해하고 항일 투쟁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자동)

■ 최근 일부 친일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잘못된 사관을 저자는 각종 실증 자료를 통해 여지없이 분쇄하였고, 더불어 항일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이 보여 준 숭고한 희생정신을 감동 깊게 보여 줬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임시정부를 모독하는 건 ‘8·15 건국절’만이 아니다, 정부는 잘못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바로잡아라.”

—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유적지를 정부가 이처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독립운동 선열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책 속에서)

-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0년 2월, 3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2월	3월	회원명	2월	3월	회원명	2월	3월	회원명	2월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10,000	20,000	김호진	10,000	10,000	유원목	20,000		정철승	30,000	30,000
광복회 성남시지회	30,000		김희선	10,000	110,000	윤경자	30,000	30,000	정환기	10,000	10,000
강만길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규중	30,000	30,000	조기식	10,000	20,000
공성진	30,000	3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조명숙	10,000	10,000
곽태원	50,000	50,000	류동연		5,000	이두엽	20,000		조세현	20,000	20,000
권순갑	20,000	20,000	노용래	30,000	30,000	이두희	30,000	30,000	조영록		30,000
권영관	10,000	10,000	류시경	30,000	30,000	이병규	10,000	10,000	조영민		10,000
김경진	5,000		민환성	10,000	1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상배	10,000	10,000	조용환	30,000	30,000
김광재		5,000	박두영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동완	10,000	10,000	박아영	10,000	10,000	이영춘	30,000	3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동현	10,000	1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영후	30,000	30,000	조희환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선군	10,000	10,000	박의란	30,000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성근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용국	5,000	5,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숙경	50,000	5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영림	30,000	3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재선	10,000	5,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용덕	10,000		서영환	30,000	30,000	이정재	50,000	150,000	최민국	10,000	10,000
김원규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이종락	30,000	3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원유	50,000	50,000	송만섭	50,000		이창복	20,000	20,000	최정호	10,000	10,000
김위	20,000	20,000	송재웅	60,000	30,000	이학중	10,000		한세웅	30,000	30,000
김위현	50,000	50,000	신명식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허석현	5,000	
김지동	100,000	100,000	신영연		10,000	이호현	20,000	2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신준수	20,000	20,000	이화순	30,000	30,000	황용만	5,000	5,000
김정욱	50,000	50,000	심재권	30,000	30,000	인순창	30,000	30,000	◆ 2010년 2월, 3월 특별회비		
김종배	20,000	20,000	안영찬	5,000	5,000	임재경	5,000	5,000			
김중숙	10,000	10,000	엄근학	10,000	10,000	장문호	10,000		회원명	2월	3월
김진경	5,000	5,000	엄기남	50,000	50,000	장은기	20,000	20,000	(주)오트 오티오	6,000,000	6,000,000
김진모	20,000	20,000	오승수	10,000	10,000	장팔순	10,000	10,000	(주)아빠철강	2,000,000	2,000,000
김진영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장홍	20,000	20,000	김숙경	200,000	
김진현	50,000	50,000	오정수	20,000	2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경진	70,000	
김태운		50,000	우상호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태운		50,000
김학근	10,000	10,000	원영애	30,000		정범규		30,000	김선현		2,000,000